SECTOR UPDATE

2025. 10. 20.

산업재팀

한영수 팀장
han.youngsoo@samsung.com

정소연 Research Associate
soyeon.chung@samsung.com

▶ 종목 정보

HD한국조선해양 (009540 KS, 420,500)		
목표주가	520,000원	23.7%
BUY		
HD현대중공업 (329180 KS, 509,000)		
목표주가	630,000원	23.8%
BUY		
HD현대미포 (010620 KS, 201,000)		
목표주가	256,000원	27.4%
BUY		
삼성중공업 (010140 KS, 22,550)		
목표주가	27,600원	22.4%
BUY		
한화오션 (042660 KS, 107,200)		
목표주가	120,000원	11.9%
BUY		
HD현대마린솔루션 (443060 KS, 228,000)		
목표주가	264,000원	15.8%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조선 (OVERWEIGHT)

선박 환경 규제 확정 시점 연기, 생각보다 크지 않은 영향

- IMO 회의에서 탄소세 부과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이 1년 연기
- 환경 규제 강화가 조선주 투자 근거 중 하나였던 만큼 단기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 그럼에도 조선업에 긍정적 시각 유지. 친환경선 발주 지속 가능성, 규제 지연 영향에 덜 민감한 한국의 주력 선종, 아직 남아 있는 이익 모멘텀 때문

WHAT'S THE STORY?

IMO 임시 회의, 탄소세 부과 결정 연기: 지난주 IMO가 환경보호위원회(이하 MEPC) 임시 회의를 통해 해운 부문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을 1년 연기. 구체적으로는 탄소세가 포함된 규제 패키지의 채택을 1년 뒤로 미룬 것. 전체 176개 회원국 중 57개국이 결정 연기에 찬성. 미국의 반대가 회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

단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조선주에 대한 단기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선박 환경 규제 강화는 국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한 강력한 투자 포인트로 여겨져 왔기 때문. 시장은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조선 업종 진입 장벽 강화와 고사양 친환경 선박 발주로 인한 대형사들의 실질 수주 단가 인상을 기대.

그럼에도 조선주에 긍정적 시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 탄소세 부과의 결정 시점 연기에도 조선사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는 이유는 세 가지. 첫 번째로, 선주들의 친환경선 중심 발주 양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 금번 회의는 탄소세 부과 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을 미룬 것일 뿐, 규제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기 때문. 선주들은 오늘 발주를 해도 3년 뒤에나 선박을 인도받게 되며, 이후 20년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선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선박 발주 시 환경 규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두 번째 근거는 한국의 주력이 컨테이너선과 가스선이라는 점. 조선사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환경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선주들이 발주 계획을 연기하는 것. 이 경우에도 컨테이너선과 가스선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 컨테이너선은 이미 2028년까지의 인도 일정이 대부분 확정. 즉, 조선사들은 이미 필요한 물량을 확보. 또한 컨테이너선사들은 미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친환경선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할 정도로, 환경 규제에 확신을 갖고 있는 편. 가스선은 환경 규제가 아닌 에너지 수요 구성 변화가 발주를 결정하는 분야. 또한 규제와 관계없이, 전통 연료보다는 수송하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선종.

마지막으로는 조선사들의 이익 모멘텀이 환경 규제 관련 투자 심리 훼손을 상쇄할 것. 여전히 주식 시장 내 기계업의 프리미엄은 유지. 그리고 현재 조선업 밸류에이션은 기계업 평균 대비 할인된 수준. 장단기 이익 모멘텀에 기반한 이익 전망 상향은 조선업의 투자 매력을 강화시킬 것. 환경 규제 관련 조정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

IMO,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 연기

실망스러운 IMO의 MEPC 임시 회의 결과

IMO가 지난주 런던에서 열린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이하 MEPC) 임시 회의에서 해운 부문 탄소세 도입 결정을 1년 연기. 구체적으로 탄소세 부과안을 포함한 규제 패키지(Net Zero Framework) 채택에 대한 결정을 1년 뒤로 미룬 것.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체 176개 회원국 중 57개국이 결정 연기에 찬성. 49개국은 반대. 참고로, IMO는 지난 4월 MEPC에서 83차 회의에서 상기 규제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으며, 해당 탄소세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규제 논의의 1년 연기를 제안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지속적인 탄소세 반대 역시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은 해운 환경 규제를 지지하는 국가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해당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 실제로 IMO 임시 회의 직후 미국 국무장관은 SNS에 이를 '또 하나의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제도 결정 지연에 대한 유감을 표명.

단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 존재할 것

선박 환경 규제 강화는 조선주에 대한 주요 투자 포인트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진입 장벽은 신규 조선업체의 업계 진입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고, 환경 규제 충족을 위한 고사양 선박은 조선사들의 실질 수주 단가 인상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 특히 선박 탄소세는 기존 환경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로서 큰 의미를 가져왔던 것이 사실.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 것을 호재로 보기 어려운 이유. 조선주에 대한 단기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국내 조선사들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

선주들의 친환경선 발주 행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

상기 뉴스에도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바꿀 이유는 없다는 판단. 이유는 세 가지.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선주들의 선박발주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 즉, 선주들은 여전히 환경 규제를 의식하면서, 친환경선 위주의 선발주를 지속할 것.

이번 IMO 회의 결과는 선박 환경 규제가 전면적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 현재 전 세계 조선사들이 3년 이상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 오늘 선박을 발주하면, 해당 선박은 일러도 2028년 하반기부터 인도. 선박 환경 규제 자체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면, 3년 뒤에 선박을 인도받아야 하는 선주 입장에서는 여전히 친환경 선박을 주문할 유인이 충분.

그리고 무엇보다 선박은 20년 이상의 수명 연한을 갖는 내구재. 이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기간. 또한 유럽이 환경 규제에 여전히 적극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환경 규제 강화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선주들의 친환경선 선호 현상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

한국의 주력 선종은 가스선과 컨테이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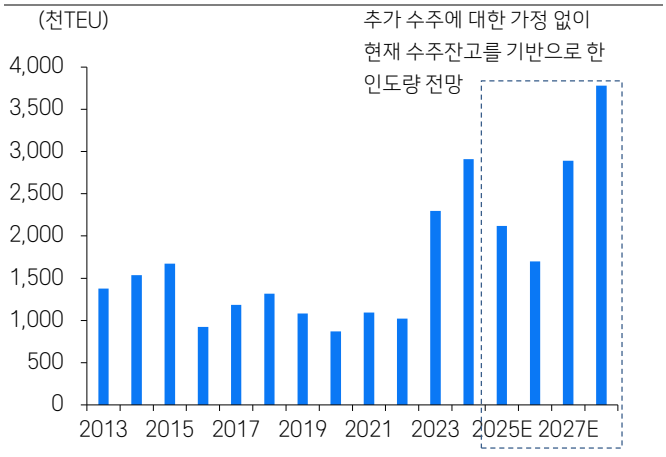
이번 IMO 회의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주들의 친환경선 선호의 변화가 아니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선박 구매 결정 자체를 연기하는 것. 환경 규제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기존 노후 선박의 폐선 시기를 늦추고, 신규 선박 구매 결정을 늦출 가능성이 존재. 향후 추가 상선 수주 모멘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상기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은 상대적으로 관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이는 국내 대형사들의 주력 선종이 가스선과 컨테이너선이기 때문.

어차피 컨테이너선은 거듭되는 대규모 선박 발주로 2028년까지의 인도 슬롯이 대부분 확정된 상태. 조선사들 입장에서도 컨테이너선은 추가 수주를 위한 인도 슬롯이 당분간은 제한적인 상태. 선주 입장에서도 추가 발주는 더 먼 미래의 인도 슬롯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는 선박 환경 규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컨테이너선사들은 미국의 해운 정책과 관계없이 타 선종에 비해 선박 환경 규제 강화에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는 편. 사실 미국의 환경 규제 반대는 기존에도 알려져 있던 내용. 그럼에도 컨테이너선사들은 올해까지도 친환경선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온 상태. 당장 IMO 회의가 진행 중인 지난주에도, 국내 해운선사인 HMM이 대규모 친환경(LNG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

가스선 발주는 환경 규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편. 가스선 수요는 해운산업에 대한 환경 규제보다, 에너지 시장의 수요 변화 자체에 더욱 민감. 예를 들어, 가스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LNG선은 환경 규제보다 천연가스 생산설비의 건설 여부에 의해 수요가 결정.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확대와, 유럽의 에너지원 및 수입처 다변화 정책이 더욱 중요. 그리고 에너지 수송선은 운송 중인 에너지를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환경 규제 여부와 관계없이, 친환경 에너지(운송 중인 가스)를 추진체로 활용하는 선박의 발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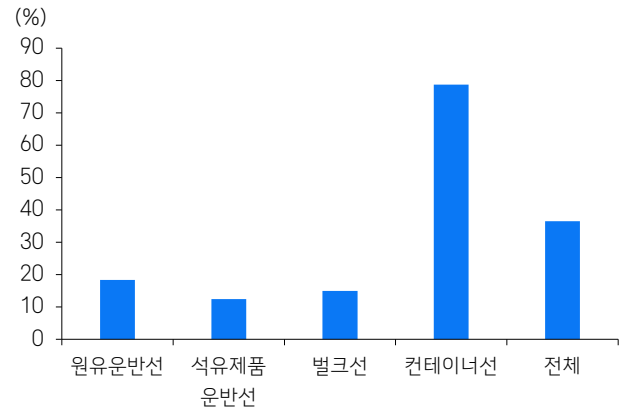
현재 선주들의 선박 구매 결정 연기 리스크가 높은 선종은 벌크선과 유조선. 해당 분야는 컨테이너선 대비 상대적으로 수주 잔고가 많지 않아 추가 발주를 기대하던 선종. 또한 해당 분야는 실제로 선주들이 친환경선 발주 여부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던 상황. 만약 벌크선과 유조선 발주가 연기된다면, 해당 영향은 해당 선박을 주력으로 하는 중국 중소 조선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컨테이너선 인도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larksons

주요 선종별, 수주 잔고 내 대안 연료 추진선 비중



참고: 향후 대안 연료 추진선으로의 개조 가능 선박까지 포함
자료: Clarksons

무엇보다 이익 모멘텀이 우려를 상쇄할 것

주식의 측면에서도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 무엇보다 이익 개선 모멘텀이 환경 규제 관련 우려를 상쇄해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 고선가 물량의 매출 인식 확대와 원가 요인의 안정화, 그리고 새로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 덕분. 이는 모두 일시적이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지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 조만간 발표될 3분기 실적도 양호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 물론 일부 임단협 타결, 합병 축하금, 건조 중 사고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이를 제거한 실적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회성 비용에도 발표 실적은 컨센서스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 조업 일수 차이와 계절성을 감안하면, 2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3분기 실적은 충분히 견고한 수준.

조선사들의 견고한 실적 대비 현재 시장의 추정치 역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 참고로 현재 국내 조선사들에 대한 2027년 영업이익률 추정치는 15% 수준. 직전 호황기 최고 영업이익률 13%보다는 높은 수준. 그럼에도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견고한 수준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의 이익추정치는 추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판단. 근거는 선가 인상 효과의 실적 반영. 현재 조선사들의 매출은 주로 2022년 수주분에서 발생. 2023년 선가는 '지수'를 기준으로도 2022년 평균 대비 7%, 2024년 선가는 2022년 대비 17% 높은 수준. 환율까지 감안하면 8%, 24% 차이. 해당 고선가 물량이 매출로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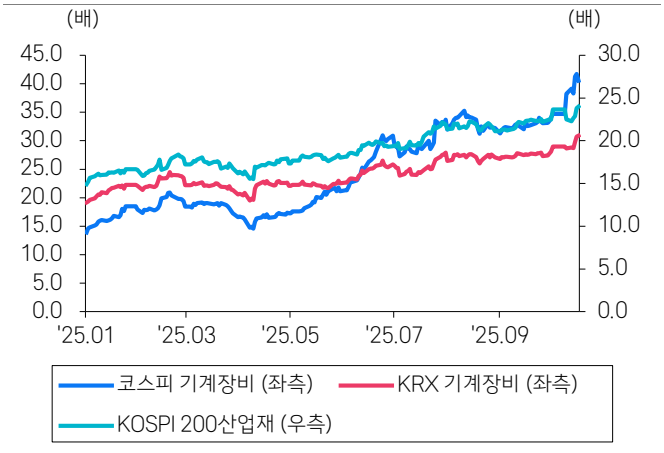
국내 산업재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 각종 불확실성에도 오히려 기계장비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상향. 그리고 현재 한국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산업재 전체 대비 할증된 수준은 아닌 상태. 여기에 조선사들의 이익 추정치 상향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산업재 내 조선사들에 대한 선호 현상 역시 지속될 수 있을 것. 오히려 우호적인 환율과 빠른 차입금 축소를 반영하여 주요 조선사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와 목표주가를 상향. 구체적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직전 목표주가 산정 당시 대비 보유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52만원으로 상향.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목표주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익을 2026년도로 변경. 이후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동일한 목표 P/E 28배를 적용하여 목표주가를 각각 27,600원, 120,000원으로 상향. 참고로 목표 P/E 28배는 과거 HD현대중공업 목표주가 산정 당시의 국내 기계 업종(KRX기계장비) 평균 P/E로, 해당 지표는 현재 31배로 상승한 상태.

대형 5개 조선사에 대한 시장의 영업이익률 추정치

(%)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합산*
1H25	11.4	6.5	18.1	6.3	9.8	10.6
2025년 컨센서스	12.0	7.5	18.4	7.7	10.5	11.3
2027년 컨센서스	16.3	12.0	22.2	11.9	14.1	15.3
최근 20년 최고 최고	16.0	15.2	19.1	8.3	10.8	12.7

참고: *5개사 매출과 영업이익을 합산하여 산출,
**HD한국조선해양 실적에서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수치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FnGuide, 삼성증권

KRX산업재 및 KRX기계장비 2026년 P/E 추이



자료: FnGuide

조선사 목표주가 변경

(원)	변경 후	변경 전	차이 (%)	변경 사유
HD한국조선해양	520,000	460,000	13.0	직전 산정 시점 대비 보유 지분 가치 상승
삼성중공업	27,600	24,000	15.0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 변경(2025년 → 2026년)
한화오션	120,000	113,000	6.2	밸류에이션 기준 연도 변경(2025년 → 2026년)

자료: 삼성증권

부록: 3분기 실적 preview, 밸류에이션 요약, 주간 조선 지표

주요 조선사 3분기 실적 preview

(십억원)	3Q25E	2Q25	Q-Q (%)	3Q24	Y-Y (%)	컨센서스	차이 (%)
HD현대중공업							
매출액	3,990	4,147	-3.8	3,609	10.6	4,013	-0.6
영업이익	451	471	-4.2	206	119.0	483	-6.5
세전이익	470	280	67.7	87	439.7	461	2.0
지배주주순이익	362	211	71.6	78	363.8	348	4.1
현대미포조선							
매출액	1,106	1,234	-10.4	1,078	2.6	1,202	-8.0
영업이익	87	89	-2.3	35	147.8	95	-8.1
세전이익	104	28	273.6	3	3,567.7	106	-2.0
지배주주순이익	78	22	252.2	-0	흑전	71	10.8
HD한국조선해양							
매출액	7,024	7,428	-5.4	6,246	12.5	7,093	-1.0
영업이익	873	954	-8.4	398	119.2	933	-6.4
세전이익	835	546	52.9	217	284.9	839	-0.6
지배주주순이익	534	356	49.9	151	253.7	533	0.3
삼성중공업							
매출액	2,687	2,683	0.2	2,323	15.7	2,688	-0.0
영업이익	218	205	6.6	120	82.2	215	1.5
세전이익	198	215	-7.7	72	176.2	184	7.8
지배주주순이익	148	214	-30.9	74	99.9	163	-9.4
한화오션							
매출액	3,200	3,294	-2.9	2,703	18.4	3,293	-2.8
영업이익	311	372	-16.3	26	1,115.9	350	-11.2
세전이익	271	151	79.9	-73	흑전	327	-17.1
지배주주순이익	212	148	42.5	-75	흑전	267	-20.8

자료: 각 사, FnGuide, 삼성증권 추정

조선사 밸류에이션 요약

(십억원)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미포
매출액	2024	25,539	14,486	9,903	10,776	4,630
	2025E	29,001	16,246	10,658	13,232	4,896
	2026E	32,822	18,338	12,522	14,788	5,783
	2027E	36,933	22,115	13,984	15,749	6,004
영업이익	2024	1,434	705	503	238	89
	2025E	3,574	1,890	791	1,305	344
	2026E	4,757	2,578	1,271	1,723	565
	2027E	6,198	3,844	1,580	1,900	619
P/E (배)	2024	25.4	72.7	310.7	62.2	76.1
	2025E	14.1	34.7	33.2	36.1	30.4
	2026E	10.0	22.9	22.9	25.7	19.1
	2027E	7.7	15.2	17.5	22.6	17.1
P/B (배)	2024	2.7	7.9	5.2	6.8	3.9
	2025E	2.3	6.8	4.6	5.8	3.6
	2026E	2.0	5.6	4.0	4.7	3.1
	2027E	1.6	4.4	3.4	3.9	2.8
EPS 성장률 (%)	2024	428.8	2,417.7	-143.1	230.3	nm
	2025E	79.4	109.8	836.8	72.1	150.2
	2026E	41.4	51.5	45.0	40.8	59.1
	2027E	30.2	50.4	30.7	13.3	11.6
ROE (%)	2024	11.0	11.4	1.8	11.5	5.3
	2025E	17.3	21.1	14.7	17.2	12.3
	2026E	22.2	26.9	18.6	20.2	17.5

자료: 삼성증권 추정

조선업 주간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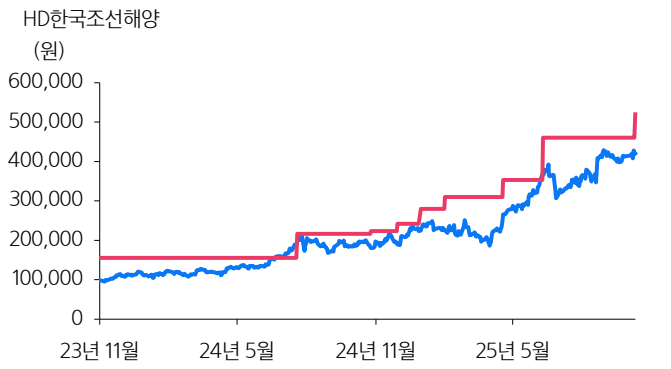
	현재	지난주 대비		2024년 말 대비	
	10월 17일	10월 10일	증감률 (%)	2024년 말	증감률 (%)
신조선가 (백만달러)					
전체 (지수)	185.3	185.3	0.0	189.2	-2.0
벌크선 (Capesize)	73.0	73.0	0.0	76.0	-3.9
유조선 (VLCC)	126.0	126.0	0.0	129.0	-2.3
유조선 (51,000DWT PC선)	48.5	48.5	0.0	52.0	-6.7
컨테이너선 (22,000TEU)	238.0	239.0	-0.4	244.0	-2.5
컨테이너선 (13,000TEU)	148.0	148.0	0.0	153.0	-3.3
LNG선 (174,000m^3)	249.0	249.0	0.0	260.0	-4.2
중고선가 (백만달러)*					
전체	188.0	187.0	0.5	176.0	6.8
벌크선 (Capesize)	65.0	65.0	0.0	62.0	4.8
유조선 (VLCC)	118.0	118.0	0.0	114.0	3.5
유조선 (51,000DWT PC선)	43.0	43.0	0.0	42.0	2.4
일일용선료 (달러)**					
벌크선 (Capesize, Eco)	24,950	24,400	2.3	18,500	34.9
벌크선 (Capesize, Non-Eco)	23,950	23,400	2.4	17,500	36.9
유조선 (VLCC, Eco)	54,250	52,000	4.3	41,000	32.3
유조선 (VLCC, Non-Eco)	49,750	49,000	1.5	37,250	33.6
운임지수					
Clarksea 지수 (달러/일)	30,461	28,977	5.1	21,965	38.7
BDI	2,069	1,936	6.9	997	107.5
WS (사우디 기준)	98	93	5.4	40	143.8
CCFI	973	1,015	-4.1	1,515	-35.8
SCFI	1,310	1,160	12.9	2,460	-46.7
에너지 가격					
천연가스 (달러/백만BTU)	2.7	2.9	-8.6	3.4	-22.1
유가 (달러/배럴)***	57.5	58.9	-2.3	71.7	-19.8
MGO-HSFO 스프레드 (달러/톤)	275.0	274.8	0.1	205.5	33.8
VLSFO-HSFO 스프레드 (달러/톤)	67.0	72.5	-7.6	87.0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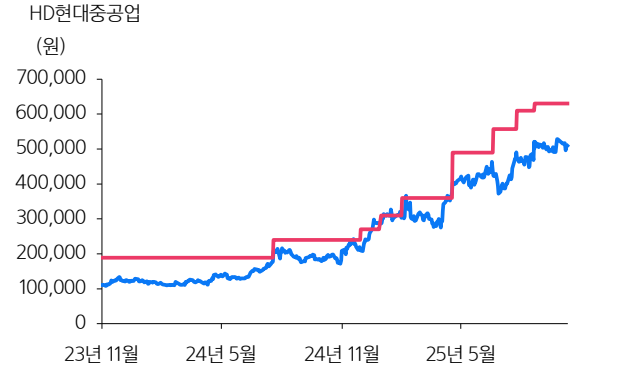
참고: 이번 주 전체 선가 지수 및 일부 선종의 신조선가 지수는 미공개
* 선령 5년 기준
** 1년 용선료 기준
*** 유가는 WTI spot, 천연가스는 Henry Hub가격
자료: Clarksons,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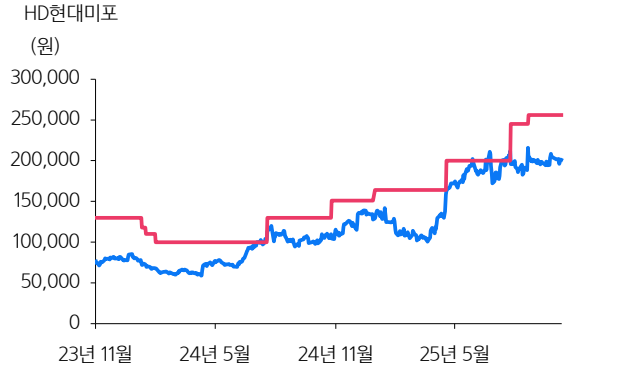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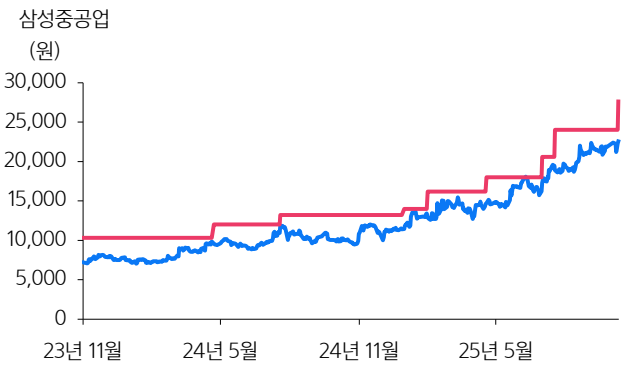
- 당사는 2025년 10월 17일 현재 삼성중공업와(과) 계열사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5년 10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5년 10월 17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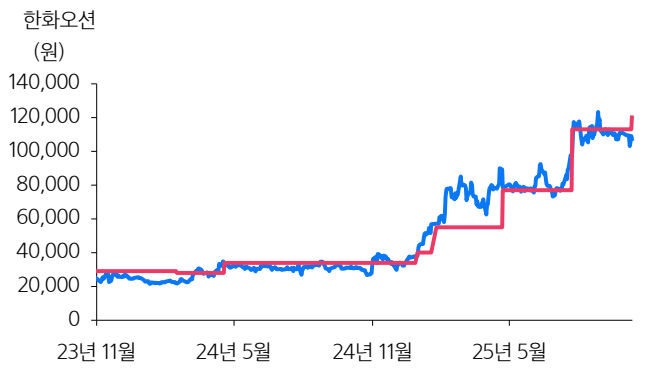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HD한국조선해양

일 자	2023/7/13	2024/7/13	2024/7/26	11/1	12/6	2025/1/6	2/7	4/25	6/17	10/2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55000	155000	216000	223000	242000	280000	310000	353000	460000	520000
괴리율 (평균)	-22.90	16.60	-11.83	-11.64	-10.75	-15.81	-29.33	-14.91	-18.45	
괴리율 (최대or최소)	7.81	22.39	-1.39	-2.91	-2.69	-11.25	-19.03	4.11	-6.85	

HD현대중공업

일 자	2023/7/13	2024/7/13	2024/7/26	12/6	2025/1/6	2/7	4/25	6/26	8/1	8/28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89000	189000	240000	270000	310000	360000	490000	557000	610000	630000
괴리율 (평균)	-33.76	-10.04	-16.98	-5.02	-0.44	-12.25	-14.73	-25.30	-22.82	
괴리율 (최대or최소)	-16.61	-6.08	0.83	10.37	5.48	4.44	-5.41	-11.94	-14.59	

HD현대미포

일 자	2023/7/13	2024/1/17	1/23	2/7	7/26	11/1	2025/1/6	4/25	8/1	8/28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30000	118000	110000	100000	130000	151000	164000	200000	245000	256000
괴리율 (평균)	-36.65	-38.22	-37.45	-25.70	-18.97	-18.15	-27.70	-6.61	-21.32	
괴리율 (최대or최소)	-27.54	-37.37	-35.91	4.20	-7.69	-8.01	-3.35	6.00	-11.84	

삼성중공업

일 자	2023/7/13	2024/4/29	7/26	2025/1/6	2/6	4/25	7/8	7/25	10/2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0300	12000	13200	14000	16200	18000	20600	24000	27600
괴리율 (평균)	-22.09	-19.43	-18.76	-8.59	-13.15	-11.28	-10.26	-13.95	
괴리율 (최대or최소)	-4.37	-7.58	-8.86	-2.36	-4.69	0.39	-5.00	-6.04	

한화오션

일 자	2023/8/24	10/26	2024/2/22	4/25	2025/1/6	1/31	4/29	7/30	10/20
투자의견	HOLD	HOLD	BUY	HOLD	HOLD	HOLD	HOLD	BUY	BUY
TP (원)	28429	29000	28000	34000	40000	55000	77000	113000	120000
괴리율 (평균)	5.59	-16.52	-2.39	-5.92	23.37	33.92	5.22	-1.68	
괴리율 (최대or최소)	-14.17	-4.83	24.11	15.29	41.75	3.82	-5.06	9.03	

HD현대마린솔루션

일 자	2025/9/19
투자의견	BUY
TP (원)	264000
괴리율 (평균)	
괴리율 (최대or최소)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산업

OVERWEIGHT (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NEUTRAL (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5. 9. 30 기준
매수(83.5%)·중립(16.5%)·매도(0%)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1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